

# 광주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민주 집안싸움 ‘점입가경’

### 의장단·상임위 경선 내부 후유증 위원장 4명중 교문위원장 재선거 국힘 시당 “민주주의 역행” 비판 “전반기엔 없던 모습… 자성 필요”

제9대 광주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이 진행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 갈등으로 단독 추대·입후보한 상임위원장이 선출되지 못하는 등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일부 시의원들은 ‘상상도 못한 결과’라며 “의장단·상임위 경선 과정에서 나온 후유증이 본선에 나온 것”이라고 해석했다.

광주시의회는 11일 임시회를 열고 4개 상임위원장(행정자치위·환경복지위·산업건설위·교육문화위) 선출을 위한 투표를 했다. 각 상임위에는 △행자위 안명환 △환복위 최지현 △산건위 박필순 △교문위 명진 의원 등 민주당 후보가 단독 출마

했으나 대부분 턱걸이로 과반을 넘겼고, 명진 의원은 1·2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지 못하는 11표에 그쳐 최종 선출되지 못했다.

광주시의회는 전체 의원 23명 중 민주당 21명·국민의힘 1명·무소속 1명으로, 민주당 내부 경선을 통해 정해진 출마자가 사실상 본선에서도 선출되는 게 일반적이다. 특정 상임위원장 선출이 안 돼 재선거가 치러진 것은 지난 2008년 이후 두 번째다.

광주시의회는 교문위원장 후보를 다시 신청받아 오는 16일 재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이날 당초 예정됐던 운영위원장 선출은 19일로 미뤄졌다.

지역 정가에서는 민주당 의장단 경선 중 발생한 후보 담합설과 교문위 상임위원 선정 과정에서 나온 ‘갈등 후유증’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9일 시의회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는 정원이 6명인 교문위에 11명이 지원하며 3시간 넘는 논쟁이 발생, 결국 제비뽑기로 최종 결정하는 촌극이 발생했다.

그에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민주당 시의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약세 후보간 야합’이 제기돼 논란을 빚기도 했다. 당시 1차 투표서 2위에 머물렀던 신수정 의원이 결선에서 1차 1위 강수훈 의원을 꺾는 이변을 보였다.

의명을 요청한 시의원은 “상상도 못한 결과다. 경선 과정에서 잡음은 있었지만 당에서 결정된 사안이 뒤집힐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다”며 “제비뽑기로 뽑은 교문위에 북구 지역 시의원이 3명 배정됐다. 지역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많았다. 더불어 경선 이후 의원 간 상호 불신·불만도 깊은 것 같다”고 귀띔했다.

교문위는 예산 감축 기조가 지속되는 광주시에 비해 주기관인 광주시교육청의 업무 난도가 낮아 지역구 민원 해결 등이

수월하다는 인식이 강하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기존에 선출된 명진 의원을 다시 16일 본선에 등록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광주시당은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정현 국힘 시당위원장은 “시의회에 김용임 의원이 여당의 대표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의장단부터 상임위까지 논의·협치 없이 ‘일당독점’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며 “민주당 후보가 본선에서 통과되지 못한 시점에 다시 민주당 인사를 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불신이 가득한 상황에서 어떻게 좋은 후보가 나올 수 있나. ‘독점의 폐해’가 나온 만큼 권력 나눠먹기 행태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힘 광주시당은 조만간 성명서 등 입장 발표를 준비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자중지란을 반성하고 시민들에 신뢰 받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

했다.

공진성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역 특성상 누구나 정치를 시작할 때 민주당으로 시작하려고 한다. 그러다보니 겉으로는 끈끈해 보이지만 내부 조직력은 약하다”며 “현 국회의원들은 기초·광역의원들과 피가 다르다. 결국 이들은 2년 뒤 지방선거를 위해 각자 역할을 맡아야 하는데, 이 욕심이 이번 원 구성 과정에서 나온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중심을 잡아줄 인물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현재 시당위원장은 유명무실에 중앙당도 전당대회 등으로 신경을 못 쓰고 있지 않나”라며 “이러다 보니 각자 이전투구(자기 이익을 위하여 불쌍사냥 게 싸우는 것)하고 있다. 경선으로 선출된 단독 후보가 뽑히지 않았다는 것은 당의 물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민주당이 깊게 자성해야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 광주시, ‘양림-ACC-동명 관광벨트 연결’ 추진

### 강 시장, 양림권역서 ‘정책소풍’ 근대화자산 활용 관광 활성화

광주시가 지역 근대화 산실인 양림권역의 관광명소화를 위해 양림동-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동명동 일대를 관광벨트로 연결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기정 시장은 전날 오후 광주사직공원 전망대에서 ‘정책소풍’을 열어 현장 의견수렴에 나섰다.

이날 정책소풍은 광주시가 양림동~ACC~동명동 일대를 관광벨트로 묶어 관광명소화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정책소풍에는 강 시장과 최흥진 호남신학대학교 총장, 문희성 전 광주기독교교단협의회 회장, 김진강 광주관광공사 사장, 류재한 전남대학교 교수, 정성구 도시문화집단CS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양림동 근대화자산을 활용하고, 현대의 ACC와 동명동을 연결해 광주만의 매력

있는 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림동 일원은 유진별, 오웬 등을 비롯한 서양인 선교사들이 모여 교회·학교·병원 등을 개설하는 등 기독교 복음 전파의 터전으로 불린다.

또 전통문화와 서양문화가 결합해 한옥과 서양식 건물, 선교문화 유적지, 400년 노거수 호랑가시나무 등 전통 문화재가 보존돼 있는 근대역사문화마을이자 이색적인 관광자원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다.

일제강점기 이후 한센병·결핵 치유 및 빈민구제 공동체 등을 통한 희생과 나눔의 상징이자 근대정신문화를 보급한 선교사들의 묘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집단 묘역으로 기독교순례 투어 등이 활발히 진행돼 명소화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류재한 전남대 교수는 “양림동의 산재한 관광자원을 동명동 카페거리, ACC와 연결해 210만명의 관광객이 양림동 근대역사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관광벨트사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안했다.



강기정 광주시장(가운데)이 지난 10일 남구 양림동에서 열린 제39회 정책소풍에 참석해 양림권역 근대역사문화 거점벨트 사업 관련, 선교사 묘역 등을 답사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강기정 시장은 “근대문화의 산실인 양림권역은 광주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보물이다.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정책을 구체

화하겠다”며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듯 곳곳에 흩어져있는 문화·예술·역사 자원을 집중시켜 광주의 대표적 관광

명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권범 기자**

## 본핏동물병원이 **광주본동물병원**으로 상호를 바꿉니다

안녕하세요. **광주본핏동물병원**은 아이들을 존중하는 뜻으로 애완의 의미인 **핏**을 삭제하고 **광주본동물병원**으로 새롭게 상호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착한마음’ ‘착한진료’ 반려동물의 근본을 치료하고 반려동물을 본받게 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상호만 변경되며 의료진, 전화번호, 위치는 동일합니다**

**디스크 / 슬개골 / 호르몬 질환 전문**

**광주본동물병원**  
KWANGJU BON ANIMAL HOSPITAL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0 T. 062-447-8575